



주간통일정세 2014-03(2013.01.13~01.19)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4-03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마식령 스키장 체제선전에 적극 활용(1/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2면 '눈부신 주로'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2014년 새해를 앞두고 마식령 스키장이 요란하게 개장된 것은 세계가 조선(북한)을 또다시 새롭게 알게 한 역사적 사변"이라며 "마식령은 최첨단의 문명세계를 펼치는 호화로운 영(嶺)"이라고 평가함.
 - 신문은 "우리의 후대들이 향유할 몫이라고만 생각했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당대의 향유의 재부로 됐다"라며 "다른 나라의 재벌들이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던 호화스러운 생활도 우리 자신의 보통생활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라고 강조함.
 - 또한 마식령 스키장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이 따뜻하게 흘러넘치는 사랑의 주로", "위대한 헌신과 노고의 자욱이 깃든 애국애민의 주로"라고 표현하면서 김 제1위원장의 '인민중시 원칙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부각함.

- **北김정은 국가과학원 시찰... "아낌없는 과학기술 투자"(1/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국가과학원을 방문해 과학자와 기술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평안남도 평성의 국가과학원을 둘러보고 "우리가 강성해지고 잘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고립압살책동이 그 어느 때보다 악랄해지고 있는데 맞게 과학기술의 힘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고 통신이 전함.
 - 또 "적들과의 대결전에서 연전연승을 이룩하자면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며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함.

- **北 최룡해, 평양 방직공장 합숙소 건설현장 시찰(1/15, 조선중앙통신)**
 - 최룡해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합숙소 건설현장을 현지 시찰해 시공 실태와 자재 공급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건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고 지열 난방을 도입하기 위한 대책들을 협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 **北, 최고인민회의 지역.군사 부문 선거투 구성(1/1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도, 시, 군 선거위원회와 군사 부문 선거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 **北, 신세대에 충성 강조... "배신자 용서 못해"(1/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자'란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우리는 새 세대들이 항일혁명투사들의 정신 세계에 언제나 자기를 비취보며 부단히 수양하고 단련해나가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충실성의 전통, 혁명의 대를 깨끗이 이어나가게 해야 한다"고 역설함.
 - 신문은 "당 및 근로단체 조직에서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며 "부모가 혁명가라고 하여 자식이 저절로 혁명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함.

- **北 김정은, 군악단 연주 감상... "전투적 군악" 강조(1/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군악단의 연주를 감상하고 군과 주민의 사기를 높일 군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군악은 인민군대의 상징이고 열굴"이라며 "전투적 기백이 차넘치는 군악을 더 높이 올려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낙관, 원수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멸적의 투지를 안겨줘야 한다"고 강조함.

- **北, '張 세력' 박춘홍·량청송 당 부부장 숙청한 듯(1/17,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 장성택 세력 제거작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춘홍·량청송 노동당 부부장이 숙청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함.
 - 통신이 17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김정은 공개활동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이름은 장성택과 마찬가지로 수행자 명단에서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됨.

- **北 김정은, 공연 관람도 '선군'... 軍 악단 선호(1/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7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등 군 수뇌들과 함께 인민군 군악단의 연주회를 관람했다고 전함.
 - 특히 김 제1위원장은 군악단 연주회에 '대만족'을 표시하고 이 연주회가



새해 들어 자신에게 "큰 힘을 줬다"고 크게 치하함.

■ 김정은동향

- 1/15, 김정은 黨 제1비서, 국가과학원 현지지도(1.15,중통·중방)
 - 최태복, 한광복, 리재일, 박태성, 황병서, 마원춘 동행
 - 장철(국가과학원 원장), 김운기(국가과학원 당위 책임비서) 영접
- 1/16, 김정은 黨 제1비서, 1.15 '권향심'(평북 운전군, 100살)에게 생일상 전달(1.16,중통)
- 1/17,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군악단의 연주회 지도(1.17,중통·중방)
 - 최룡해, 리영길, 김수길, 럽철성, 최휘, 황병서 등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합숙 건설정형 현지요해(1.15,중통·중방)
- 北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박봉주(내각 총리/보고) 등 참가하 '김정은의 새해 신년사 과업 관철' 토의 및 '해당할 결정서 채택' 등 진행(1.18,중통)
 - 회의에서는 지난해에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데 대해 언급 했으며, 올해 내각 앞에 나선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했음.

나. 경제

● 北 "전력·석탄 증산 집중하자"...에너지문제에 총력(1/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전력, 석탄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전력과 석탄 생산에 힘을 집중해 그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 오늘의 경제사업에서 이보다 더 긴급한 과제는 없다"고 밝힘.
- 신문은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이며 석탄은 공업의 생명선"이라며 전력·석탄산업의 증산은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함.

● 北 "평안도 등 서부지구 탄광 집중 투자"(1/1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리영용 석탄공업성 부상을 인용해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유리한 서부지구 탄광들에 노력과 설비, 자재들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함.



- 리 부상은 "(석탄공업)성에서는 올해에 높은 석탄증산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치밀하게 계획) 있다"며 "성 안의 정무원 (고위 공무원)들은 각지 탄전들에 나가 작전과 지휘를 기동성 있게 진행 하고 있다"고 말함.

● 北 경제개발구 발전과제 제시... "정치군사환경 중요"(1/19, 연합뉴스; 사회과학원 학보)

- 연합뉴스가 19일 입수한 북한 계간지 '사회과학원 학보' 최신호(2013년 11월15일 발행)는 '경제개발구들을 설치하고 발전시켜 경제강국 건설을 다그치는 데서 나서는 중요문제'라는 글에서 경제개발구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5가지를 제시하면서 "정치적 군사적 환경을 잘 마련하는 것"을 네번째 '중요문제'로 제시함.
- 학보는 "그것은 투자자들이 투자에 앞서 투자하여할 나라의 정치군사적 환경을 고려하여 투자하기 때문"이라며 "경제개발구에서의 정치군사적 환경은 투자의 안정성 보장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함.

다. 군사

● 北, 노농적위군 창설일 맞아 '김정은에 충성' 강조(1/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1면 사설에서 "노농적위군은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드는 혁명적 무장력"이라며 "대오 안에 최고사령관(김정은) 동지의 명령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영군체계와 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독려함.
- 이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요 계기마다 민간무력의 전투적 기상을 만천하에 떨치도록 내세워주었다"며 "그 어떤 천지풍파 속에서도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목숨으로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함.

라. 사회문화

● 北 "농사는 정치적 문제"...연일 증산 독려(1/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 올해 알곡 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함으로써 올해 당이 제시한 알곡 고지를 기어이 점령해야 한다"고 밝힘.
- 또 "농사를 잘 지어 쌀더미를 높이 쌓으면 경제강국 건설도 문명국 건설도 문제없다"며 올해 농사는 '경제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만세 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게 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문제"라고 강조함.



2. 대외관계

가. 일반

- **로드먼, 베이징 귀환..."좋은 일 하고 싶었을뿐"(1/13, 연합뉴스)**
 - 귀국길에 오른 데니스 로드먼은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북한 여행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며 "이런 기회를 준 김정은 장군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함.
 - 로드먼은 "이것 하나만은 확실히 말하고 싶다"면서 "(나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에게 현재 북한에서 어떤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라며 북한 방문 배경을 설명함.
 - 북한에 장기간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와 관련해 북한 당국에 어떤 문제를 제기했느냐는 질문에는 "유감이다(I'm sorry). (그에 대해)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내 잘못은 아니다"면서 "나는 단지 좋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고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였다"고 말함.

- **英 텔레토비·닥터후가 북한 개방 앞당길까(1/13, 선데이타임스)**
 -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의 지원 아래, BBC가 북한 국영 TV와 함께 각종 BBC 고전 프로그램을 북한에 방영하는 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함.
 - 헤이그 장관은 하원 외무위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번 방영 논의가 장기적으로 북한이란 닫힌 사회에서 외부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일본 이노키 의원 평양 도착...28번째 방북(1/13, 조선중앙통신; 교도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안토니오 이노키(본명 이노키 간지) 일본유신회 소속 참의원이 일행과 함께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한 후 만수대언덕에 있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에 헌화했다고 보도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노키 의원은 이번 방북의 주된 이유로 스포츠 교류 촉진을 제시했으며 김영일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등 요인들과의 회담도 계획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 평양에 외자계 햄버거점 속속 오픈(1/13, 아사히신문)**
 - 북한 평양에 외국계 자본의 햄버거 점이 속속 문을 열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3일 싱가포르발로 보도함.
 - 관계자에 따르면 4년 반 전 평양에 생긴 햄버거 1호점이 호평을 받아 현재 옥외 매대를 포함 햄버거점이 10곳이 넘었음.
 - 싱가포르 투자가가 출자한 이 햄버거점 이름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역대 지도자를 뜻하는 '삼대성(三大星)'으로, 작년 6월에는 김정은 국 방위위원회 제1위원장도 한 곳을 방문, 햄버거를 시식했다는 전함.

- **北,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권 아직 못 따(1/14,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다음달 7일 개막하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따지 못해 대회에 선수를 한 명도 출전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함.
 - 방송은 13일 기준으로 북한 선수들이 소치 올림픽 출전권을 한 장도 확보하지 못했으며 피겨스케이팅 남자부와 페어에서 각각 대기자 명단에 오른 데 그쳤다고 전함.

- **美·中, 北 문제 정기적으로 논의(1/14, 미국의소리(VOA))**
 - 미국과 중국이 2009년 북한의 비상사태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양국이 북한 문제를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함.
 -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중이 북한 비상사태 가능성을 논의했는지에 대한 VOA의 질문에 "미국과 중국은 북한을 포함해 상호 중요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함.
 -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발간한 '중국과 대량살상무기·미사일 확산' 보고서에서는 2009년 10월 커트 캠벨 당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상사태를 논의했는지 묻는 말에 "모든 사안"을 논의했다고 답한 사실이 확인됨.

- **北, 작년 태국산 고무 수입 급증... "경공업 원료 수요"(1/14, 연합뉴스)**
 - 코트리는 작년 1~9월 태국의 대북 고무 수출액이 6천720만 달러(약 710억 원)로 집계됐고 이는 2012년 한 해 태국의 대북 고무 수출액(1천 400만 달러)의 4.8배에 달하는 액수라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함.
 - 통신은 태국의 대북 고무 수출액이 2010년과 2011년만 해도 연간 100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2012년부터 기파른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는 김정은 시대 북한이 '인민생활 향상'을 내걸며 경공업 발전에 힘을 기울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함.

- **북미 합작영화 '산너머 마을' 美뉴저지 영화제서 상영(1/1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과 미국의 합작영화인 '산너머 마을'이 이달 24일 개막하는 미국 뉴저지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함.
 - 6·25전쟁 당시 남한 군인과 북한 간호사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는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을 해온 재미동포 사업가 배병준씨가 투



자하고 각본을 썼고 촬영은 평양, 신의주, 개성 등 북한 현지에서 이뤄졌으며 영화 배우와 스태프도 모두 북한 사람들로 구성됨.

● **北내부영상 다큐 美방영... "주민들 김정은 능력 의심" (1/15, 허핑턴포스트)**

- 영국의 다큐멘터리 감독인 제임스 존스는 일본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郎) 대표와 함께 다큐 '비밀 국가 북한'을 제작, 14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방송 PBS에서 첫선을 보였다고 허핑턴포스트가 15일 보도함.
- 존스 감독은 모든 북한 주민이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능력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였다면서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한 탈북여성조차도 김 위원장은 멍청이라고 했다"고 전함.

● **북-중 신압록강대교 공정률 80%...올해 개통 (1/15, 신화통신)**

- 신화통신은 14일 열린 랴오닝(遼寧)성 교통운수공작회의를 인용해 중국 단둥(丹東)과 북한 신의주 남부를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가 주탑과 교량 상판 공사를 마쳐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15일 보도함.
- 총연장 3천26m, 왕복 4차로의 신압록강대교는 2기의 거대한 주탑에서 비스듬히 드리운 여러 개의 케이블로 다리를 지탱하는 형태의 사장교(斜張橋)며, 전체 사업비 22억2천만위안(약 3천800억 원)은 중국 측이 모두 부담함.

● **北 김영일 비서, 방북 이노키 日 의원 면담 (1/1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북)일우호친선협회 고문인 김영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15일 방북 중인 안토니오 이노키(본명 이노키 간지) 일본유신회 소속 참의원과의 일행을 만나 담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 **월드비전, 올해 대북지원에 100만달러 투입 (1/16,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은 올해 북한에서 식수·영양 지원, 농업기술 전수, 재난 구호 등의 사업을 벌여 100만 달러(약 10억6천만 원)를 쓸 계획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함.
- 월드비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식수 지원사업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평안남도의 정수시설이 완공되면 지역 주민 5천300 명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北, 마식령 스키장에 평양 주재 외교관 초청 '홍보' (1/16,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16일 류홍차이(劉洪才) 중국 대사를 비롯한 북한 주재 외교관, 무관, 국제기구 대표들과 그 가족들이 마식령 스키장을 방문했다고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류홍차이 중국 대사는 "여기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마식령 스키장에 외뿔다고 말할 수 없다"며 "마식령 스키장은 규모가 대단히 크고 사람들에게 정신적, 문화적 재부를 안겨주는 곳"이라고 말함.

● **北 "美 선의로 나오면 우리도 그에 맞게 행동"(1/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자주권 존중의 원칙에서 친선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로드면 방북과 농구경기가 두 나라 국민 사이의 이해를 도모하는 계기가 된다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한 뒤 "미국이 이제라도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선의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그에 맞게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그러나 "만일 미국이 우리를 반대하여 계속 압력을 가하고 힘을 사용하는 데로 나간다면 강위력한 자위적 힘을 가진 선군 조선은 그에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함.

● **北 장성택파 적발단 국경에 파견(1/16, 요미우리신문)**

- 북한이 이른바 '장성택 파(派)'를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 중국및 러시아 국경에 접한 라선경제무역지대에 '적발단'을 파견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6일 보도함.
- 신문은 "매국행위'에 가담한 인물을 적발해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장씨와 관련된 인물을 일소하려는 목적"이라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면서 적발단 파견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독재체제 재건을 서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함.

● **中, 北 한미훈련 중단 주장에 "모두 자제해야"(1/16, 연합뉴스)**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거듭 주장한 것과 관련, "우리는 유관 당사국이 모두 자제를 유지하고 서로를 자극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현재의 안정된 정세를 공고히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함.

● **北, 中과 협력해 동평양 상업거리 착공(1/1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북한이 중국 자본과 손잡고 추진하는 동평양지구 상업거리 건설의 착공식이 열렸다고 착공식에 김기석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과 황스짜이(黃世再) 대중화국제투자집단유한공사 회장, 주북 중국대사관 경제무역참사가 참석했다고 보도함.

● **이노키 "北, 日납치문제담당장관 방북 초청"(1/16, 연합뉴스)**

- 일본유신회 안토니오 이노키 참의회 의원은 3박4일간의 방북일정을 마



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일우호친선협회의 고문인 김영일 노동당 국제부장이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일본 납치문제담당상의 방북을 요망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함.

● 유럽 NGO, 北 남포항에 물류창고 건설 계획(1/17, 자유아시아방송(RFA))

– 영국의 대북 지원단체인 '북녘어린이사랑'(Love North Korea Children) 측은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 홍콩지부의 지원을 받아 남포항에 구호품 물류창고를 짓는 등 대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함.

● 北, 파나마에 '청천강호 석방' 벌금 7억원 내기로(1/17, AFP통신)

– 북한이 불법무기 운반 혐의로 파나마에서 6개월째 억류 중인 청천강호와 선원을 석방시키려고 다음 주 약 67만 달러(7억1천만원)의 벌금을 현지 정부에 내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17일 보도함.

● 北 지방도시에도 판매용 아파트 건설(1/17,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북한 주민 소식통들을 인용해 평양 뿐 아니라 평안북도 신의주시, 양강도 해산시, 평안남도 평성시 같은 지방 도시들에도 판매용 아파트가 잇달아 건설되고 있다고 보도함.
– 소식통들은 기업소들이 북한 당국의 묵인 아래 판매용 아파트를 짓고 있으며 이들 아파트가 주로 외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 주택'으로 불리며 "약 100㎡ 규모 아파트의 가격은 약 3만 달러(약 3천200만 원) 정도"라며 "실내 장식이 전혀 안 돼 있어 실제 입주하는 데는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말함.

● 유엔, 650만달러 대북 긴급지원(1/18,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산하 기구들에 650만 달러(약 69억 원)를 긴급 지원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함.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은 북한을 비롯한 8개국의 유엔 기구들에 8천60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면서 북한에는 650만 달러를 배정함.

● 현학봉 駐英 北대사, 평양서 나와 베이징 방문(1/18, 연합뉴스)

–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대사가 18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최근 본국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현학봉 대사는 오전 북한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한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으며, 현 대사와 함께 중국을 방문한 일행 중에는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연구원 몇 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北 노동신문, 美의 '키 리졸브' 강행 방침 비난(1/19, 노동신문)**
 - 북한의 노동신문은 19일 미국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고 도발"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선제공격을 위한 위험한 전쟁소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과 관련해 궤변을 하고 있다며 "평양타격을 노리고 최대규모로 벌어지는 전쟁연습이 어떻게 '방어적 성격'을 띤다고 쫓겨는가(떠드는가)"라고 지적함.

■ 기타 (대외 일반)

- 美 무인정찰기(글로벌 호크) 일본에 배치 계획 등 관련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무모한 실천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아-태지역에 군사력을 강화하여 세계제패 야망을 기어 이 실현해 보려는 기도'라고 비난(1.13,중통·노동신문·평방)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남북관계 개선은 南 태도에 달렸다"(1/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5면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에 서서 해결하는 데서 북남관계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힘.
 - 신문은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는 데서 해결해야 할 선차적인 문제는 동족끼리 서로 비방·중상하고 반목질시하는 것부터 중단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한국 정부의 태도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함.

- **北, 한미군사연습 중지 요구..."남북관계 파국위기"(1/15, 연합뉴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15일 한미 군 당국의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합동 군사연습을 "북남관계 개선과 대화에 대한 전면부정"이라며 "미국과 남조선 당국에 조선반도 정세와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며 파멸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군사연습을 중지할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함.
 - 조평통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고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계기와 대화의 틀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언급한 사실을 거론하며 "남조선 집권자가 한 말이 가짜이며 속으로는 판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난함.

● 정부 "北, 이중적 행태 즉각 중단하라"(1/16, 연합뉴스)

-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연례적인 한미 키리졸브 연습 전pcm 면 중지를 요구하며 남북관계 파국을 위협한 것과 관련, "북한이 연례적 방어 훈련을 비난하며 우리를 위협했다"면서 "대남 비방증상과 위협 등 신뢰를 위협하는 이중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함.
- 이 당국자는 "북한은 신년사에서 말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시급한 현안인 이산가족 상봉을 거부한 바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北 "30일부터 상호 비방 중단...적대행위 중지 제안"(1/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위원회는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입장이라며 "오는 1월 30일부터 음력 설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증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것을 남조선 당국에 정식으로 제의한다"고 밝힘.
- 국방위는 또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며 남한 정부에 2월 말 시작할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등의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거듭 촉구함.
- 특히 서해 5개 섬의 '열점지역'을 포함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행위를 전면중지할 것을 강조한다며 "이 제안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는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밝힘.

● 北 단체 "南 '북한인권 소동'에 매달리지 마라"(1/17, 우리민족끼리)

- 북한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17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법 통과 의지를 강조한 데 대해 "동족대결을 격화시키려는 악랄한 책동"이라고 비난했다고 북한의 인터넷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보도함.
-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이어 "남조선 보수집권 세력은 비방증상과 반목질시가 북남 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 마련에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모략적인 북인권 소동에 더이상 매여달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촉구함.



- **정부, 北제안 사실상 거부…"사실왜곡·여론호도 유감"(1/17, 연합뉴스)**

 - 정부는 17일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한 국방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소위 '중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17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우선 북한의 상호 비방 중단 제안과 관련, "남북간 비방중상 중지 합의를 위반하면서 그동안 비방중상을 지속해 온 것은 바로 북한"이라면서 "북한은 불과 2주 전 신년사를 통해 비방중상 중단을 주장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대한 비방중상과 위협을 계속해 왔다"고 비판함.
 - 그는 "이것이 바로 북한이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행태"라며 "비방중상을 설 전후해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일단 자기들이 비방중상 중지 제의를 한 이후부터 멈춰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북한의 비방중상 중지를 요구함.

- **北 통신, 북핵 위협 대응 한미연습 비난(1/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한미 군 당국이 최근 하와이에서 북한의 핵 위협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 연습을 한 데 대해 "무분별한 망동"이라고 비난함.
 - 통신은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 핵전쟁을 가상한 군사연습 감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방부가 지난 14~15일(현지시간) 하와이의 미국 태평양사령부에서 제3차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토의식 연습(TTX:Table Top Exercise)을 한 사실을 거론함.
 - 또한 남한과 미국이 2011년 시작한 이 연습에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사용징후에 포착되면 선제타격한다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올해 처음 적용했다고 지적함.

- **北 매체, 南에 '중대제안' 수용 재차 촉구(1/17, 우리민족끼리)**

 - 북한은 17일 남한 정부가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을 수용할 것을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재차 촉구함.
 - 우리민족끼리는 홈페이지에 올린 '태도를 바로 가져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달 30일부터 상호 비방의 전면중단 등을 제시한 중대제안에 대해 "북과 남 사이에 조성된 현 사태를 수습하고 온 겨레에게 닥쳐올 핵재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의 하나"라고 주장함.

- **北 "중대제안 실천행동 먼저 할 것"…南 수용 촉구(1/18, 노동신문)**

 -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18일 국방위원회의 '중대 제안'을 먼저 실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남한도 이에 부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함.
 - 신문은 '대결의 악순환을 끝장내기 위한 실천적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



에서 "이번의 중대 제안을 실현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우리는 이미 선언한대로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밝힘.

● **北, 국방위 '중대제안' 이후 연일 대남 평화공세(1/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 대한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애국적 결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대제안에 대한 각계 반응을 소개함.
- 김일성종합대학 철학부의 김룡진 교원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넓은 길을 열어나갈 대안이 바로 국방위원회 중대제안에 있다"며 남한 정부에 "중대제안을 성실히 받아들이고 북남관계 개선의 길에 주저없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 또 북한의 간판 역도선수 엄운철은 6·15공동선언을 거론하며 "북과 남의 체육인들이 통일기를 휘날리며 단일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과시하던 그때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라며 지금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노력할 시기라고 강조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우리 민간단체들에 "파쇼 타도" 신년서신(1/16, 연합뉴스)**

- 관련당국과 북한 관련 민간단체들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측 대북지원 단체, 통일 단체, 종교·사회 단체, 개인 등 60여곳에 팩스 등을 이용해 '2014년 신년 서신'을 보내왔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함.
- 한 개신교 단체가 받은 신년 서신에서 북한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 불의를 타파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파쑈(파쇼의 북한식 표현) 독재를 짓부시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기독교 본연의 자세"라고 주장함.

●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완공...설 전 가동 목표(1/16,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어제 개성공단 RFID 공사 작업을 마무리했다"며 "일주일 정도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고 개선·보완을 거쳐 설 연휴 전인 1월 말부터 일일단위 상시출입을 실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함.

● **남북, 개성공단 '3통' 분과위 24일 개최(1/17, 연합뉴스)**

-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산하 '3통'(통신·통행·통관) 분과위원회 회의가 24일 열릴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17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이 (개성공단) 사무처를 통해 분과위 개최 문제를 협의해왔고 이 중 3통 분과위 일정이 우선 확정됐다"며 "나머지 분과위 일정은 사무처를 통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함.
- 북한은 오전 공동운영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남측에 3통 분과위 회의 일



정을 제안했고 우리 측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짐.

■ 기타 (대남)

- 우리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민주당·통진당·정의당' 등의 비난을 거론 "민심은 천심"이라며 '현 집권자를 비롯한 당국자들은 민심의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1.13,평방)
-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1.15), 韓美 '키 리졸브, 독수리' 군사연습 강행時 "북남관계가 파국적위기에 처하게 될 것은 물론 상상을 초월하는 참화와 재난이 빚어질 수 있다"며 중지 요구·위협(1.15,중통·중방)
- [北 국방위 중대 제안(1.16)] '정부·정당·단체들의 위임에 따라 원칙적 문제들을 제안한다'며 '1월30일부터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모든 행위와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고 핵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 조치를 호상 취해 나가자'고 주장(1.16,중통·중·평방)
- [중통사 논평]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연습' 계획 관련 '조선반도 정세를 새로운 대결국면으로 몰아가려는 군사적 도발'이라며 '관계 개선과 대화에 대한 전면 부정이며 핵 전면 대결전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韓美 비난(1.16,중통)

● 북한연구센터 제공



- <“북한 올해 연쇄 핵실험 · 로켓발사 가능성”>(1/18, 연합뉴스)
 - 17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에 따르면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의 조엘 위트 연구원은 최근 북한을 촬영한 상업위성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잇단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음.
 - 그는 우선 북한이 2년 전 시작한 영변 핵시설의 대규모 현대화 계획이 지난해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5MW급 원자로 재가동과 우라늄 농축시설 용량 확대 등을 언급하며, 플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 또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도 새로운 터널 입구가 포착됐고, 이곳에서 진행되는 굴착 작업이 마무리되면 추가 핵실험을 위해 3개의 터널을 갖추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음.
 - 그는 특히 올해 추가 핵실험은 지도부의 명령이 있으면 언제라도 할 가능성이 있으며, "터널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연쇄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나. 미·북 관계

- <“美 전직 외교관들 "북한 붕괴론은 선부른 추측"”>(1/15, 연합뉴스)
 - 일부 미국의 전직 외교당국자들은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작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했음.
 -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초빙교수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장성택 숙청 이후에도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북한의 붕괴에 대한 희망 때문에 그런 예측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음.
 - 위트 교수는 북한 정권의 통제가 느슨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 권력이 나라 전체에 미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현 정부에 애착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도 같은 의견을 표명했으며, 장성택 숙청 사건은 오히려 북한의 조기 붕괴 가능성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음.
 - 이어 미국과 중국이 2009년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최근 뉴스와 관련해 이는 중국이 북한을 인내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 중·북 관계

- <“중북 신압록강대교 공정률 80%…올해 개통”>(1/15, 연합뉴스)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5일 중국과 북한 간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신압록강대교(중국명 중조신압록강도로대교)의 전체 공정률이 80%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음.
 - 전체 사업비 22억2천만위안(약 3천800억 원)은 중국 측이 모두 부담하



며, 신압록강대교가 예정대로 오는 9월 개통되면 기존의 압록강대교는 철도교량으로만 사용되고, 시내에 있는 중북 도로통상구는 신압록강대교 쪽으로 이전한다고 함.

- 중국 당국은 신압록강대교와 새 통상구가 가동되면 앞으로 중북 간 전체 무역량의 60%가량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신압록강대교와 연결되는 시멘트 포장도로가 개통되면 차량을 이용해 현재 4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단둥~평양 구간이 2시간 안팎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라. 일·북 관계

● <방북 이노키 의원 "장성택 처형에도 北 불변·평온">(1/16, 연합뉴스)

-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유신회 소속 참의원은 16일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에도 북한에서 특별한 변화는 감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그는 장성택의 숙청과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번 일의 경위에 대한 설명은 있었다"고 말했으며, "일북과는 별로 관계없다"고 말해 장성택의 처형이 일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노키 의원은 지난 15일 김영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와 면담을 통해 일북 스포츠 행사 개최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 받았음을 시사했으며, 북한이 앞으로 일본 의원단의 평양 방문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마. 기타

● <“북한-이란 '슈퍼 ICBM' 개발 협력">(1/14, 연합뉴스)

-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은 13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기고문에서 워싱턴타임스 군사전문기자의 주장을 인용해 미사일 분야에서 오랜 기간 협력한 북한과 이란이 슈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도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관측했다.
- 루이스 연구원은 또 이란이 지난해 정부와 민간의 미사일 전문가 4명을 북한의 관련 시설에 배치했다는 서방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도 소개했다.
- 그는 앞으로 이란과 북한이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협력을 해나갈는지 알기 어렵지만 란과 북한이 최근 ICBM 분야에서 과학적, 기술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비밀 부속서에 사인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전했다.
- 이어 그는 ICBM 크기를 키우면 한 종류의 미사일에 다양한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고 설명하면서 북한과 이란이 ICBM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더 큰 우수발사체 제작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진단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워싱턴DC서 TPP 협상 첫 예비 양자협약>(1/14,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양국 간 예비 양자협약을 개최했음.
 -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 우리측 대표단은 웬디 커틀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대표로 한 미국측과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과 참여 조건 등을 논의했으며, 양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한 이행 등 통상 현안도 논의했음.
 - 최 차관보가 이끄는 대표단은 미국을 시작으로 멕시코 칠레, 페루와 예비 양자협약을 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의 예비 양자협약을 한 후, TPP 참여 여부와 시기 등을 가늠할 예정임.
 - 한편 이와 관련해 워싱턴 D.C.의 외교 소식통은 "TPP에 참여하려면 '관심 표명→예비 양자협약→참여 선언→공식 양자협약→기존 참여국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美상원 외교위, 한미원자력협정 2년 연장안 통과>(1/16, 연합뉴스)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한미 원자력협정의 만기를 2016년 3월 19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구두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음.
 -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이어서 별도 표결 절차조차 없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공화당의 밥 코커 상원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한국 측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주는 것에는 핵무기 연료 생산에 사용될 공산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고 주장했음.
 - 외교 소식통은 "일단 연장안 자체에는 여야 간 이견이 크게 없는 법안이어서 3월 19일 데드라인 이전에 모든 절차가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음.
 - 한국과 미국은 원자력협정 개정 협의를 벌여왔으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 문제 등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지난해 4월 말 협정 만기를 2년 늦추기로 합의했고, 하원에서는 지난해 9월 17일 전원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 처리한 바 있음.



- <美 정식법안에 포함된 '위안부 사과'...허절린 일본>(1/16, 연합뉴스)
 - 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위안부 문제가 담긴 2014년 통합 세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으며,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보고서 형태로 정부 법안에 포함됐지만 그 의미와 파장이 간단치 않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공통된 평가임.
 - 위안부 문제가 정식법안에 포함되는 데에는 2007년 위안부 결의를 주도한 민주당의 마이크 혼다 의원과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이 막후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구체적인 내용은 '2007년 7월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H. Res. 121)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이 결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임.
 -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 17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서명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세출법안에 포함된 위안부 관련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미국 정부의 대일본 외교정책 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백악관 "한·미 군사훈련 변경 없다">(1/17, 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이 키 리졸브(KR) 및 독수리 연습(FE) 등 한·미 군사연습 중단을 거듭 요구한 것에 대해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의 대북정책도 변함없다"면서 "북한은 국제의무를 준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을 중단함으로써 고립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카니 대변인은 북한과 이란이 슈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는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명확한 정책을 갖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음.

나. 한중 관계

- <中, 北 '중대제안'에 남북 '쌍방, 선의 발휘하길">(1/17, 연합뉴스)
 - 중국은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17일 북한이 전날 국방위원회 명의로 남한에 이른바 '중대제안'을 한 데 대해 "우리는 남북 쌍방이 선의를 발휘해 지역형세가 안정적 방향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유관 보도를 주목하고 있다. 남북은 동일민족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화해 협력하는 것은 쌍방의 공동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지역의 평화안정에도 부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중국이 북한의 '대화 움직임'에 환영 입장보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먼저 취한 것은 한국정부가 북한 제안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 앞서 중국 정부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거듭 주장한 것과 관련, 16일 유관 당사국 모두에게 자제를 촉구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강조한바 있음.

다. 한일 관계

- <日, 교과서에 '독도는 고유영토' 명기방침 공식확인>(1/14,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14일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지침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확인했음.
 -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고교 교과서편집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센카쿠 열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명기하는 것에 대해 "아이들이 일본의 영토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음.
 - 시모무라 문부상은 한국과 중국의 항의에 대해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며 "개정시에 외교경로로 주변국들에 제대로 설명할 것"이라고 부연했으며, 독도 등과 관련한 내용을 언제 넣을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거론하지 않았음.
 -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시모무라 문부상은 오는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 총회 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중일 역사 공동연구를 제안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음.
- <日 외무상 "정상회담 어렵다면 외상회담이라도 하자">(1/17, 연합뉴스)
 - NHK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17일 도쿄에서 열린 강연에서 "단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어렵다면 여러 레벨에서 대화를 쌓아가고 싶다"고 밝혔음.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은 작년 7월 아세안 관련 회의와 9월 유엔 총회에 나란히 참석한 것을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가진 바 있으며, 기시다 외무성상은 이런 외무장관급의 접촉을 중시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음.
 - 이어 기시다 외무상은 한일관계에 대해 "아베 내각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확실히 계승하고, 그것을 정중하게 설명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며 "동아시아의 안정에는 한미일 관계의 안정이 중요하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음.
- <정부 "동해는 국제적 명칭"...日 관방장관 발언 반박>(1/17, 연합뉴스)
 - 정부는 17일 일본 정부가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명칭'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음.
 - 이에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정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가 '동해명기 법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명칭"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일본해 호칭 단독 사용을 지지한다'는 스가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 지명위원회가 단일표기 방침을 두고 있고 관행상 가장 널리 쓰이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일본해라는 특정 지명이나 특정 국가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으며, "특정 지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병기하는 것이 국제적 지도제작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라. 미·중 관계

● <美 의회보고서 "미·중, 2009년 북한 비상사태 논의">(1/13, 연합뉴스)

-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펴낸 '중국과 대량살상무기·미사일 확산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0월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상사태를 논의했는지를 질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인정했음.
-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이 공식 정부 채널로 북한 비상사태를 논의한 것이 확인된 적은 없었으며, 이런 논의에 대해서 중국은 북한과의 특수관계를 고려해 난색을 보여왔음.
- 그러나 보고서는 "2010년 2월 중국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이 북한 내부 붕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나라가 북한의 정치와 군의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지켜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 보고서는 "실제로 중국은 북한과의 군사 관계에서 '압박'보다는 북한 정권의 안보와 생존을 지지하는 쪽으로 초점을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 한편 14일 미국의소리 방송도 미 국무부는 양국이 북한 문제를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음.

● <中, 동풍-21D 시험발사... "미군개입 억지력 과시">(1/14, 연합뉴스)

- 대만 왕보는 중국 관영 환구망을 인용해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명이 붙은 중국의 최신형 대함 탄도미사일 동풍(東風)-21D가 시험 발사됐다고 대만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 이 미사일은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의 개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전해지며, 사거리는 3천100km로 남중국해 해역의 80% 이상이 목표권이며, 서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국 항공모함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성능임.
- 미국 해군 정보 당국은 동풍-21D가 조만간 실전 전력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 미사일 배치가 미군의 아시아 및 서태평양지역 작전에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평가했음.



마. 마일 관계

- <“일본, 미국-인도 연례 해상훈련 참가 재추진”>(1/15, 연합뉴스)
 - 인도 뉴스통신 PTI은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이 지난주 뉴델리 방문 당시 인도와 미국 간 연례 해상훈련인 '말라바르'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보도했음.
 - 오노데라 방위상은 회담 후 PTI와의 인터뷰에서 "3국간 해상훈련이 특정국가를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는 항로 안전을 위한 세 우방국 간의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 인도와 미국은 1992년부터 매년 말라바르 훈련을 실시했으며, 2007년에는 일본과 호주도 참여시켰으나, 이후 중국 측이 강력히 반발하자 원래대로 인도 인근해상과 미국에서만 이 훈련을 진행하고 있음.
 -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과 인도가 벵골만에서 처음으로 해상훈련을 실시한지 한 달 만에 나온 것으로, 영유권 분쟁을 겪는 중국에 인도 및 미국과 힘을 합쳐 맞서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 <‘아베 책사’ 야치 방미…케리·라이스·헤이글 화동>(1/18, 연합뉴스)
 - 야치 쇼타로 신임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를 방문해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척 헤이글 국방장관, 존 케리 국무장관 등을 연쇄 회동했음.
 - '아베의 책사'로 불리는 야치 국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료 등을 상대로 국가안전보장국 설치와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악화된 미국 내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행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미국 정부는 회동 내용을 소개하면서 야치 국장이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 이유 등을 설명했다는지, 이에 대해 이틀 오바마 행정부 내 최고위급 인사가 어떤 언급을 했는지 등은 아예 밝히지 않았음.
 - 워싱턴DC 외교 소식통은 "민감하고 예민한 사안이라 외부에 공개하는 의제에는 포함하지 않았겠지만, 당연히 한·일 관계나 과거사 문제도 논의됐을 것"이라고 말했음.

바. 중일 관계

- <日방위상 “中 센카쿠해역 진입에 자위대 동원”>(1/12, 연합뉴스)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중국 해경국 선박 3척이 이날 오전 약 2시간 동안 센카쿠 12해리 해역을 항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총리관저 정보연락실을 관저 대책실로 격상했음.
 - 중국 선박이 센카쿠 12해리 해역에 진입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며, 이에 대해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반복되는 '영해 침입'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며 "외교노력도 필요하지만 자위대도 해상보안청과 협력, 우리나라 영해와 영토를 확실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중국 해경선과 어선의 센카쿠 해역 진입에 대해 해상보안청 차원에서



대응해온 일본이 자위대 동원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향후 대응 수위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됨.

● <주일 중국대사 "아베 참배 저지 위해 막판까지 노력">(1/13, 연합뉴스)

- 청용화 주일 중국대사는 13일 중국 인민일보에 작년 1년간 가장 우려했던 일은 일본 지도자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상황이었다고, 이를 미리 감지하고 참배를 막고자 막판까지 노력했으나 아베는 들은 체 만 체 하고 참배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 그는 "아베는 형세를 잘못 판단했을 뿐 아니라 잘못된 행동으로 개인은 물론 국가에도 손해를 끼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도 타격을 줬다"고 비난했음.
- 그는 일본 우익세력이 역사를 뒤집으려는 것을 저지하고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질서를 수호할 것이라며 일본의 우경화에 끝까지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음.
- 그는 그러나 "중국 정부와 인민은 일본인민에 대해 우호적이며 관용적"이라며 "중국과 일본 관계가 정상화되면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 분자와 일본 인민을 구별해 대우하고 전범과 보통 군인도 구별해 대우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중국 "영토수호 의지 앞잡아 보지 말라"...일본에 경고>(1/13,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중·고교 교과서편집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및 센카쿠열도를 '고유영토'라고 명기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13일 "중국의 강력한 의지와 결심을 앞잡아보지 마라"고 경고했음.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감히 다오위다오 문제에서 도발적 행동을 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굳건하게 대응할 것이며 모든 책임은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어 화 대변인은 오노데라 방위상이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어업조례를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30년 전 반포된 '어업법'과 다르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일본의 입장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면서 "국제사회는 일본 인사의 그런 주장에 담긴 진정한 목적에 고도의 경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음.

● <“中고위외교관들 전세계서 아베비난 여론전”>(1/14, 연합뉴스)

-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14일, 중국 외교관들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맞서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여론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환구시보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3일 오후 10시 현재까지 모두 43명의 고위급 외교관이 현지의 주류 언론매체에 글을 기고하거나 인터뷰에 응하는 방식으로 아베 총리를 비난하는 입장을 냈다고 함.
- 신문은 이어 주호주 중국대사관을 인용, 마차오쉬 주호주 중국대사가



지난 6일 현지신문 '오스트레일리안'에 아베 총리를 비난하는 글을 기고한 것을 전후해 대사관에는 호주시민들로부터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 한편,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은 관영매체를 동원해 지린성 기록보관소의 중군위안부, 731부대와 관련된 일본군 자료를 지난 9일 이후 잇달아 공개해 과거 일제의 만행을 들추는 폭로전을 계속하고 있음.

● <중국군 "언제든 전쟁할 수 있는 준비" 지시>(1/14, 연합뉴스)

- 대만 중국시보는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가 13일 각 군에 보낸 '2014년 전군 군사훈련지시'에서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생각으로 실전에 준하는 훈련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 이런 일련의 지시는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반드시 승리하도록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 지난해 지침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이와 함께 중국군은 지난해 연말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으로 중일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군사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 <중국 "日, 무리아마담화 구실로 침략역사 회피" 비난>(1/15,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15일 기사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침략역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말에 "무리아마 담화를 부정한 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일본군국주의 침략역사를 참 고심스레 회피했다"고 비난했음.
-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침략전쟁의 책임에 대해 '무리아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방패막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는 한치의 어김도 없이 정치, 외교적 행동으로 그의 행동은 무리아마 담화, 고노 담화의 정신을 부정했다. 일본은 역사문제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허위의 수법으로 결코 속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대변인은 또 아베 신조 총리가 최근 아프리카 순방 중 중국의 아프리카 지원은 시장과 자원을 얻기 위한 것으로 아프리카에 많은 기회를 제공해온 일본과 다르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가소롭다"고 반박했음.

사. 중·러 관계

● <러시아-중국 가스 공급 계약 체결 임박>(1/14, 연합뉴스)

- 10년 이상을 끌어온 러시아와 중국 간 가스공급 계약 체결이 이견을 극복하고 최종 합의에 임박했다고 BBC 방송 러시아어 인터넷판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파이낸셜 타임스(FT)도 양국 협상 관계자들을 인용해 계약 임박 전망을 전하면서 양측이 그동안 가장 큰 이견을 보여 온 가스 가격과 관련 1천 입방미터(m³)당 360~400 달러 선으로 합의를 봤다고 소개했음.



- 계약이 성사될 경우 러시아는 극동에서 중국 동북 지역으로 연결되는 '동부 노선' 가스관을 건설해 2018년부터 30년 동안 매년 380억^m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러시아 전체 가스 수출의 20%를 넘는 규모이자 중국이 지난해 사용한 전체 가스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양임.

아. 기타

● <中 군용작전기 수, 러시아 제치고 세계2위...한국 7위>(1/13, 연합뉴스)

- 홍콩 명보는 영국 항공업계 전문지 '플라이트 인터내셔널'을 인용해 중국은 1천453대의 군용 작전기를 보유해 2천470대를 보유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작전기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음.
- 중국의 공군력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적,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은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어 3위는 1천438대를 보유한 러시아였으며, 한국은 409대로 7위, 일본과 대만이 각각 291대와 286대를 보유해 9, 10위를 차지했다고 전했음.
- 상위 10개국이 보유한 작전기는 전 세계 작전기 1만 4천788대 중 59%를 차지했으며 이중 7개 국가가 아·태평양 국가로 이 지역에 공중전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음.

● <“中, 음속 10배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발사체 실험”>(1/14, 연합뉴스)

- 미국의 온라인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컨은 13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지난 9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돌파하기 위해 최대 속도가 음속의 10배에 달하는 극초음속 비행체 발사 실험이 실시됐으며, 펜타곤은 이번에 실험된 비행체를 신형 극초음속 무기로 판단하고 'WU-14'로 명명했다고 보도했음.
- 이 매체는 중국의 이번 비행체 발사 실험의 성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중국의 비밀 전략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음.
- 극초음속은 시속 3천840마일에서 7천680마일 사이를 말하며 마하 5에서 마하 10의 속력을 의미하며, 현재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극초음속 무기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인도도 가세하고 있음.

● <美, 태평양에 해·공군전력 증강배치>(1/16, 연합뉴스)

- 미국 해군은 15일(현지시간) 대서양함대 소속 니미즈급 핵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CVN-71)를 태평양함대 소속 3함대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샌디에이고 유니언 트리뷴은 이날 미 해군은 또 일본에 전진 배치한 핵 항공모함 척을 포함한 6척의 항공모함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항시 배치해 놓고 핵 항공모함의 연료 교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음.



- 미 군사 전문 주간지 에어포스타임스는 미 공군도 동부 버지니아주 랭리-유스티스 합동기지에 배치된 94 전투기대대 소속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12대와 관련 병력 300명을 일본 오키나와 가테나 미군기지에 배치 중이라고 보도했음.
- 미군의 이번 조치는 서태평양의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변국들과 군사적 긴장도를 높여가는 등 최근 역내 안보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됨.

● <"번즈 미국 국무부 부장관 내주 한중일 순방">(1/16, 교도통신)

- 교도통신은 미국 국무부 당국자를 인용해 윌리엄 번즈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다음 주 한중일 3국을 순방한다고 보도했음.
- 통신에 따르면 번즈 부장관은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 중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며, 작년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격화한 한일, 중일 간 갈등을 완화하는 '중재외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 또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이후 북한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도 한국, 일본과 협의할 전망이다.
- 번즈 부장관의 동북아 순방은 애초 지난해 말로 계획돼 있었지만, 중국 측의 사정으로 미뤄진 바 있음.

● <한국 외교부 "남-북-러 합작사업 지원조직 조만간 가동">(1/16, 연합뉴스)

- 외교부는 16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정부의 '새 유라시아 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르면 다음 달 남북한과 러시아의 삼각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기동대책반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기동대책반은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세 나라 간 도로와 철도, 전력망, 가스관, 송유관 등과 관련된 협력사업이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들 사업은 민간업체 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동대책반은 민간업체들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부분에 활동의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라고 함.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한 경제자유 세계 꼴찌"(자유아시아방송, 1.14)
 - 북한은 미국의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14일 발표한 '2014 경제자유지수' 평가에서 100점 만점인 경제자유점수 1점을 받아 '꼴찌(178개 조사 대상 중 178위)'를 기록
 - 헤리티지재단은 보고서에서 지난 20년간 매년 발표된 '경제자유지수'에서 북한이 항상 개혁 없이 폐쇄된 상태로 가장 경제자유도가 낮은 독재국가로 분류됐다고 지적
 - 지난해 1.5점을 받았던 북한은 올 해에는 부패 부문에서 0.5점이 또 깎여 가뜩이나 낮은 점수가 더 낮아지는 수모를 당함.
 - 보고서는 비록 최근 들어 몇몇 시장개혁 실험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북한의 모든 경제활동이 공산당의 엄격한 통제 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
 - 국가가 계획과 통제를 통해 경제를 엄격히 규제하고 주민들은 외부와 완전히 고립돼 생활하는 등 북한이 시장 개방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평가
 - 또한 부패가 모든 경제 단계마다 만연해있고 개인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아 국가의 재산권이 동산에까지 미치는 등 모든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지적

- 미 공영방송, 북 정보 흐름 실태 방영(자유아시아방송, 1.15)
 - 미국 공영방송 PBS가 북한 당국의 철저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흐름으로 인해 변하고 있는 북한 사회를 보여주는 기록영상물 '비밀국가북한 (Secret State of North Korea)'을 방영
 - 북한 주민이 직접 찍은 영상물을 외부세계에 소개해 온 일본의 대북매체 아시아프레스가 제공한 영상들과 미국과 한국의 북한 전문가, 탈북자와의 인터뷰를 담은 50여 분짜리 프로그램이 공개
 - 아시아프레스가 몰래 찍은 영상은 중국의 언론 자유 등을 부러워하며 북한의 현실을 개탄하는 북한 사업가, 경찰에 저항하는 장마당 여성 등 체제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의 모습을 보여줌.
 -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국장은 북한에 손전화가 5년 전부터 신속히 보급되면서 과거 60년 간 견고하게 지켜온 정보차단의 벽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고 지적



- "북, 유효기간 다 된 독일 의약품 구매"(자유아시아방송, 1.16)
 - 북한과 거래해온 독일 제약업체는 북한이 외국에서 기초 의약품을 구매할 때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주로 수입해간다고 설명
 - 한국 코트라에 따르면, 독일 함부르크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회사인 트로제 메디컬사의 토마스 틸그너 사장은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발행되는 유력 신문인 '디 벨트'지에 북한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통기한이 다 돼가는 의약품을 주로 수입해간다고 지적
 - 문제는 유통기한이 다 된 의약품이 북한에 수입될 경우 유효기간을 넘길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약효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상존
 - 독일 지멘스사는 최근 평양의 산부인과 전문 병원에 설치된 현대식 X선 단층 촬영기를 북한에 수출
 - 이 밖에 의약품과 백신 등 구호물자를 북한으로 운송해온 물류회사, 펌프 제조업체 등 다수의 독일 기업이 여전히 북한과 거래하고 있으나, 양국 간 교역량 감소 추세가 뚜렷해 독일의 대북 수출액(2013년 9월 기준, 9천700만 유로)이 전년도에 비해 1천만 유로나 감소

- 북 '전거리 교화소' 수시면회 허용(자유아시아방송, 1.16)
 - 함경북도 회령시에 있는 북한 인민보안부 교화국 '제12 교화소(전거리 교화소)'가 수감자와 가족들의 면회를 수시로 허용하면서 사망자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 소식통들은 가족들이 매일 같이 찾아와 먹을 것을 대주지 않으면 수감자들이 아사할 만큼 상황이 악화됐다고 지적
 - 지난해부터 '전거리 교화소'는 수감자들과 가족들의 일일 면회까지 허용한데다 기존에는 절대로 반입할 수 없었던 내의류들도 일정 정도로 받아주고 있어 수감자들의 생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
 - 이와 관련 얼마 전까지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되어 있었다는 한 주민은 "교화소의 생활환경이 최악으로 치달아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의 면회를 허용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달
 - 그는 지난해부터는 구리광석뿐만 아니라 몰리브덴과 흑요석까지 채취하게 되면서 수감자들 대부분이 광산 일을 하게 됐으나, 이 과정에서 굶주림과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하여 많은 수감자들이 사망하면서 교화소를 유지하고 더 많은 광물을 캐내기 위해선 가족들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수감자들을 살려야 했을 것이라고 설명

- 국제기독교단체 '북한 내 지하교회 계속 증가'(미국의 소리, 1.16)
 - 기독교 선교단체 오픈 도어즈는 1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에



- 서 지하교회가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
- 오픈 도어즈는 북한 정권이 기독교인들에게 적대적인 중요한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
 - 북한 정권은 모든 종교를 주체사상에 해로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에서는 기독교가 정권의 적으로 규정되었고 기독교인들은 미국과 한국의 간첩으로 간주
 - 북한의 교회들은 모두 지하교회가 됐고, 신자는 20만 명에서 4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5~7만 명은 관리소와 교화소 같은 수감시설에 갇혀 있다고 설명
 - 오픈 도어즈는 북한이 세계에서 기독교인으로 살기 가장 어려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하교회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심지어 관리소와 교화소 같은 수감시설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언급

● **北, 탈북 차단 부심..."브로커·친인척 '끄나폴' 조직 운영"(데일리NK, 1.16)**

-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탈북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끄나폴 조직을 운영하고 브로커들과 주민들에겐 탈북자 신고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북한 함경북도 회령 소식통은 16일 "최근 회령에서 한국행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브로커에 의해 보위부에 체포된 일들이 여러 건 있었다"면서 "심지어 친인척에게 고자질을 당해 현재 보위부에 체포된 가족도 있다"고 설명
- 최근 탈북자들이 줄지 않자 브로커나 탈북하다 적발된 주민들을 끄나폴로 만들어 탈북을 차단하려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소식통은 "한 브로커는 탈북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주민의 집에서 탈북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정해주고 나서 보위부에 신고해 체포된 기막힌 일도 있다"면서 "국내 정착한 탈북자들이 보내는 돈을 북한의 가족들에게 전해주는 브로커들도 작업을 마치고 나면 보위부에 신고해 송금된 돈을 갈취하기도 한다"고 언급
- 또한 북한은 지난해 탈북자 차단을 위해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국경 경비대원의 화선입당과 포창휴가 등으로 주민탈북을 신고토록 독려

● **北 단체 "南 '북한인권 소동'에 매달리지 마라"(연합뉴스, 1.17)**

- 북한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서 '변할 수 없는 대결본심의 발로, 북인권 소동'이라는 기고문 통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법 통과 의지를 강조한 데 대해 "동족대결을 격화시키려는 악랄한 책동"이라고 비난
- 이어 "황우여의 북인권 타령은 민심의 이목을 딛 데로 돌리고 남조



선에서 날로 높아가는 반정부 투쟁 기운을 녹잡혀보려는데 있다"며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 당국의 진짜 속심은 동족대결에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2. 북한인권

- **김한길 '北인권' 강조…北인권법 논의 탄력받을 듯(연합뉴스, 1.13)**

 -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3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종전의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북한 인권 문제 언급
 - 또한 당 소속 심재권 윤후덕 의원 등이 발의한 북한 인권 및 민생관련 법안을 당 차원에서 단일안으로 만들어 새누리당과의 절충 가능성을 제시
 - 민주당 내에서도 "두가지(새누리당안과 민주당 안)를 믹스(결합) 할 수 있다는 의미(김관영 대변인)", "(기존의 새누리당안은) 남북 간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는 평가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부정적이었는데 새누리당의 시각과 민주당의 시각을 함께 놓고 논의할 수 있다(변재일 의원)" 등의 평가
 -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진일보한 입장에 환영을 표명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세부 내용이 논의돼 반드시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평가

- **전병헌 "與 정당공천 폐지 거부, 2월국회 시련 올것"(연합뉴스, 1.13)**

 -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인권법 관련 발언
 -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법안이 북한에 비판적인 국내단체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일 뿐, 북한 인권 증진에 실효성이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지적
 - 또한 민주당은 실효성, 지속가능성, 남북관계 개선 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북한인권법이라는 원칙에 맞춰 북한인권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

- **최경환 "여야, 北인권법 2월국회 통과 머리맞대야"(연합뉴스, 1.14)**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전향적 입장을 밝혔으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



- **與 "찬스는 지금"...북한인권법 제정 드라이브(연합뉴스, 1.15)**
 - 새누리당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전향적 견해를 밝힌 것을 계기로 '북한인권법' 공세 시작
 - 다만 북한의 민생 문제까지 아우르자는 민주당의 '북한인권민생법' 방안에는 차별화
 - 황우여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조찬기도회 신년예배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돼야 한다"면서 북한 민생지원에는 다른 지원법 개정을 제안
 - 이인제 의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 김 대표가 북한인권법 제정에 협력할 뜻을 내비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최적의 시기라고 평가

- **민주, 北인권법 준비 착수...與에 '공천폐지' 압박(연합뉴스, 1.16)**
 - 민주당은 북한인권민생법 제정을 위한 원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 남북관계 전문가인 김성곤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심재권 의원과 정청래, 홍익표, 윤후덕, 인재근 의원 등이 TF에 참여
 - 민주당은 TF를 중심으로 개별 입법안을 합친 당 차원의 단일 법안을 마련해 발의할 예정

- **英 BBC, 北에 방송송출 추진 않기로(연합뉴스, 1.16)**
 - 북한 주민에게 외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대북방송을 준비 중이던 영국 BBC가 결국 사업 계획을 접기로 결정
 - 한국 정부가 대북방송 송출을 허용하지 않는 점을 그 이유 중 하나로 제시
 - 북한 전문매체인 NK뉴스는 이날 "지난주 영국 외교부가 의회 외교위원회에 'BBC 월드서비스 북한편(World Service for North Korea)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서한을 제출했다"고 보도
 - 영국 외교부는 사업 타당성, 투자 효용성 검토 결과 및 한국 정부의 외국인 방송사업 불허를 사업 포기 이유로 제시

-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발족(연합뉴스, 1.16)**
 - 6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북한 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발족 기자회견
 - 이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인권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
 - 성명에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할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음을 명시하고 북한인권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준의 북한인권법 명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인권개선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의 설치를 주장
- 기자회견에는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등 북한인권 분야에서 활동 중인 각계 인사 30여명이 참석

3. 탈북자

● 밀입북 후 아내 살해한 60대男 징역 10년(데일리NK, 1.13)

- 밀입북을 함께한 아내가 북한 당국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해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
- 북한은 지난해 10월 이 씨와 부인의 시신을 판문점을 통해 인계했고 이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됨.
-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65)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
- 재판부는 이날 "이 씨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밀입북해 북한 구성원들과 회합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기까지 했다"며 "죄책이 매우 중한데도 피해자가 죽음에 동의했다고 진술하는 등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

● 작년 입국 탈북자 1천516명…총 2만6천명 넘어(연합뉴스, 1.13)

- 통일부는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가 1,51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 이는 지난해 11월까지 '보호 결정' 조치가 확정된 1,420명에다 보호 결정 전 단계로 정부 합동신문 과정에 있는 이들을 합친 수치로, 2012년의 1,502명과 비슷한 수준
- 국내에 들어온 누적 탈북자는 26,124명으로 증가
- 작년 입국 탈북자 가운데 여성은 1,145명으로 76%를 차지
- 탈북자 중 여성 비율은 2006년 75%이래로 줄곧 7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누적 입국 탈북자 중 여성은 18,174명으로 69%를 차지
- 국내 입국 탈북자 규모가 이처럼 감소한 것은 김정은 체제 들어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탈북자 단속에 나서고 체제 선전 차원에서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를 다시 북한으로 데려가는 공작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 미국행 탈북 난민, 지난 10월 이후 '0'(미국의 소리, 1.14)

- 미 국무부 난민 입국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 회계년도인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동안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단 1명



도 없음.

- 지난 2006 회계연도에 9 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들어온 이후 지난 2013 회계연도까지 총 1백63 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

● "北, 탈북 '김정은 존엄훼손죄'로 간주...국경경비 대폭강화"(데일리NK, 1.15)

- 북한 인민보안부가 지난달 장성택 처형 이후 주민 단속을 위해 전국에 하달한 '4대 지침' 가운데 주민들의 탈북 행위에 대해 김정은을 배신하는 '최고 존엄 훼손죄'로 규정하고 국경경비를 대폭 강화
- 북한 양강도 소식통은 평양 소재 인민보안부 소속의 정치대학 졸업반 학생들로 구성된 비사회주의 검열조가 조직돼서 "검열 시작과 동시에 국경경비가 더 강화돼 탈북하다 체포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
- 정치대학 학생들은 졸업을 앞두고 있어 북한 당국에 대한 충성의지를 보이고자 검거 실적을 올리고자해 적발되면 여지없이 처벌되는 상황
- 현재 혜산시에는 정치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보안부 검열단은 국경연선(沿線)에서의 탈북과 밀수, 인신매매, 마약행위 그리고 한국 드라마 등에 대한 단속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탈북은 김정은 영도를 따르지 않고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최고 존엄 훼손죄로 엄벌에 처한다는 엄포

● 탈북자 고용지원금 빼돌린 경기 사회적기업 2곳 적발(연합뉴스, 1.18)

-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실제보다 많은 탈북자를 고용한 것처럼 꾸며 고용지원금을 챙긴 혐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회적기업 운영자 서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 서씨는 성남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2년 간 실제로 고용한 25명보다 많은 31명의 탈북자가 일하는 것으로 속여 6명에 대한 고용지원금 2천여만원을 더 받아 빼돌린 혐의
- 화성의 한 사회적기업 업주와 직원도 같은 기간 탈북자 6명을 더 고용한 것으로 신고하고 1천10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챙기려다가 덜미를 잡힘.
- 이들은 탈북자들이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계속 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됨.
- 경찰은 지난해 10월 첩보를 입수해 경기지역 업체 22곳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이들 업체를 적발



4. 이산가족

-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공사 금주 완료, 이달말 가동(연합뉴스, 1.13)**
 -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거부로 무산된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 "정부가 추가로 제의하거나 그런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북한의 반응을 봐가면서 정부 대응을 정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
- **차대통령 "원전건설 운영서 인도와 좋은 파트너 가능"(연합뉴스, 1.15)**
 - 박근혜 대통령은 인도 국영방송 '두르다르산'(Doordarshan) 과의 인터뷰에서 남북문제에 언급, "이번에 신년사에서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했다. 그걸 토대로 뭔가 관계개선의 첫 단추를 열어보고자 한 건데 그것을 북한이 이번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말 이것은 인도적인 문제고 어떻게 보면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데 이런 것까지 연속 거절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
- **류길재 "이산가족-금강산 문제가 왜 세트냐"(연합뉴스, 1.15)**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출입기자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금강산 관광 문제의 확고한 분리 원칙도 재확인
 - 그는 "남북관계 발전의 과정, 로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며 "이산가족 상봉 문제, 금강산 문제는 과거 정부에서 세트처럼(돼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게 왜 세트인가. 그건 관성의 토대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
 - 또한 "과거 이산가족은 인도지원을 해준다든지 뭘 했다. 그렇게 연계시켜서 뭔가 조건처럼"이라면서 "우리가 혹시 너무 거기에 빠져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것을 바꿔보자는 것"이라고 강조
- **北, 한미군사연습 중지 요구…"남북관계 파국위기"(연합뉴스, 1.15)**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5일 한미 군 당국의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합동군사연습 전면 중지를 요구
 -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데 대해 "남조선 집권자가 한 말이 가짜이며 속으로는 판공을 꾸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난
 - 조평통은 "북남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위선자, 도발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남측에 돌림.
- **정부 "北, 이중적 행태 즉각 중단하라"(연합뉴스, 1.16)**
 - 정부는 16일 '남북관계 파국'을 위협한 북한에 대해 '대남 비방증상



과 위협 등 신뢰를 위협하는 이중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

-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신년사에서 말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시급한 현안인 이산가족 상봉을 거부한 바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

● **北조평통, 또 군사연습중단 촉구...통일부에 통지문(연합뉴스, 1.16)**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16일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통일부에 발송
- 조평통은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남북관계의 새로운 계기와 대화의 틀을 만들어나 기기를 희망한다고 역설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관을 벌여놓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라고 비난

● **北 "30일부터 상호 비방 중단...적대행위 중지 제안"(연합뉴스, 1.16)**

- 북한은 16일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남한 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을 발표하고 이달 30일부터 상호 비방·중상을 중지하자고 제의
- 국방위는 "이 중대제안이 실현되면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하여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될 것"이라며 남한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언급

● **국방부 "北 적대행위 전면중지 제안은 명분축적용"(연합뉴스, 1.16)**

- 국방부는 16일 북한이 '키 리졸브(KR) 및 독수리 연습(FE)' 등 한미 군사연습 중단을 거듭 요구한 것과 관련, "군사연습을 중단할 수 없다"고 밝힘.
-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제안을 들어주면 이산가족 상봉도 해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명분축적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언급

● **정부, 北제안 사실상 거부..."사실왜곡. 여론호도 유감"(연합뉴스, 1.17)**

- 정부는 북한 국방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소위 '중대 제안'을 사실상 거부
- 정부는 이날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의 입장 설명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순수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과 정치적 사안을 연계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즉시 아무 조건 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시켜 남북관계의 첫 단추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언급



- **朴대통령 "北 선전공세할 때 대남도발 철저 대비해야"**(연합뉴스, 1.18)
 - 박근혜 대통령은 인도 국민 방문 후 스위스로 떠나기 전 발언에서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이산가족상봉 제안에 응하지 않으며 이러한 선전공세만을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라면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 촉구

5. 남북자

- **6.25 납북자가족 이달부터 무료 법률지원**(시민일보, 1.14)
 - 경기 여주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해 12월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6.25전쟁 납북자로 결정된 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
 - 무료법률지원 기간은 이달부터 위원회 존속기간까지이고 무료법률지원 내용은 6.25전쟁 납북자를 사건 본인으로 하는 '실종선고 심판청구'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신청'

- **이노키 "北, 日납치문제담당장관 방북 초청"**(연합뉴스, 1.16)
 - 북한을 다녀온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참의원 의원(일본유신회)은 북한이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일본 납치문제담당상의 방북을 초청했다고 설명
 -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노키 의원은 3박4일간의 방북일정을 마치고 이날 도쿄 하네다(羽田) 공항으로 입국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일우호친선협회의 고문인 김영일 노동당 국제부장이 후루야 납치문제 담당상의 방북을 요망했다고 언급
 - 이노키 의원은 일본 국회의원단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북일우호친선협회 문서를 기자들에게 보여줌.
 - 또 김영일 부장은 일본 정부가 시행중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의 재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

6. 국군포로

- **대북 지원 대가 국군포로 송환, 한국판 프라이카우프 가능할까**(중앙일보, 1.16)
 - 북한 인권이 이슈화하며 '한국형 프라이카우프'가 대안으로 제기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15일 "정치적 박해를 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 대북 경제지원으로 데려오는 프라이카우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심 의원은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이 향상되는 방안으로 대북 경제적·인도적 지원을 대가로 북한 내 정치범·납북자·국군포로 등을 남한으로 데려오는 한국판 프라이카우프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
- 정부는 원론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송환을 위한 프라이카우프 도입 가능성을 인정

7. 대북지원

- **정부, 3개 민간단체 대북지원 허용…올해 첫 승인(연합뉴스, 1.15)**
 - 통일부는 15일 남북나눔, 섬김, 겨레사랑 등 3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
 - 지원 대상은 황해북도 봉산·황주·신원 등지의 영유아로, 영양 빵 재료와 분유, 내복 등 4억 2천500만원 상당
 - 이번 사안은 올해 첫 인도적 대북지원 승인 사례
 -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대북지원) 신청 단체들에 대해 승인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승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
 -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 **월드비전, 올해 100만불 대북 지원(자유아시아방송, 1.15)**
 - 미국의 국제민간구호단체 월드비전은 올해 1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약 24만 명을 대상으로 북한 어린이 영양 지원과 농촌 지역의 식수 공급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
 - 랜들 스파도비 북한 담당 국장은 100만 달러의 예산으로 농업 기술 전수와 식수와 영양 지원, 그리고 재난 구호 등 4개 지원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언급
 - 상반기의 주력 지원 분야로 식수 사업을 꼽으며 평안남도 금촌군의 정수 시설이 완공되면 지역 주민 5,300명에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
 - 양강도, 함경남북도, 강원도, 황해남북도 등 7개도의 유치원생과 보육원생이 식량 지원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으며, 황해북도 연탄군 도치리와 칠봉리 주민 3,400명에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지원 사업도 지속
 - 또한 일곱 곳의 양수 시설과 지역 의료기관의 하수도 시설이 새로 설치되거나 재정비했으며, 마실 물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의 위생 시설을 설치하는 지원을 다른 농촌 지역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아일랜드 NGO, 대북 식수 사업(자유아시아방송, 1.16)**

- 아일랜드의 비정부기구 '킨선 월드와이드'는 올해 북한의 평안남도 와 황해북도에서 식수 및 위생 등 대북 지원 사업을 진행을 밝힘.
- 북한 주민 3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미화 180여만 달러로 진행되고 있는 이 기구의 대북 사업은 2016년까지 계속될 예정
- 4대의 태양열 물 펌프 시설과 중력으로 물을 끌어 올리는 시설로 북한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식수 위생 시설이 취약한 북한의 평남안도 회창군에서 소형·대형 중력 수도 장치를 설치, 황해북도 금천군에서는 식수와 환경 및 보건 개선 사업 진행
- 금천군 등 5개 군에는 가정마다 위생 시설을 설치했으며, 평안남도 지역에 약 2천개의 신식 변소를 지어주고, 공중 보건과 위생에 대한 교육 사업 진행

● **영 단체, 남포 물류창고 세워 지원확대(자유아시아방송, 1.16)**

- 영국의 대북지원단체 '북녘어린이사랑(Love North Korea Children)'이 북한 남포항에 구호품을 장기 보관할 창고를 세워 안정적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밝힘.
- 북녘어린이사랑 관계자는 조지 리 대표가 현재 홍콩에서 옥스팜의 지원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창고 확보를 위한 초기 비용과 매달 지원금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 표명
- 북녘어린이사랑은 남포에 물류창고가 세워지면 북한에서 가동 중인 빵공장에 재료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전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북녘어린이사랑은 북한에서 다섯 개(남포, 나진·선봉, 평양, 향산, 사리원)의 빵공장을 가동하며 북한 어린이 약 2만 명에 점심을 지원

● **유엔, 대북지원 650만 달러 긴급지원(자유아시아방송, 1.17)**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은 모금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 내 국제구호기구들에 '자금부족지원금' 65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힘.
- 유엔 지원금 650만 달러는 대북 지원 사업을 펼치는 유엔 기구들에 배정될 예정

● **프 NGO, 45만 유로 대북 식수 지원(자유아시아방송, 1.17)**

- 프랑스의 민간 구호단체인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스웨덴 외교부 산하 국제개발협력청(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으로부터 45만 유로, 미화로는 61만 달러를 지원받아 올해 10월까지 황해남도 소흥시의 유아원과 학교에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



- 이 단체는 이번 사업을 통해 1만 1천 명의 북한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주민 3만 명을 대상으로 공중 보건 및 위생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하는 것이 목표
- 식수 위생 평가 결과, 주민들의 위생 시설 접근성이 낮은 소흥시를 대상으로 3.5km의 상수관을 설치하고, 21km의 배수 시설을 신설할 계획
- 노후한 물 탱크를 개보수하고, 추가적으로 여러 지역에 배치해 주민들의 식수 접근성을 높이고, 5개의 신식 화장실도 건설 계획
- 또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 가정에 위생 청결을 위한 홍보 책자를 배포하는 등, 공중 보건과 위생에 대한 교육 사업도 진행

● 유럽연합, 대북 식량지원 계획없다(자유아시아방송, 1.17)

- 유럽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ECHO: European Commission Humanitarian Office)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긴급 지원을 해야 할 정도가 아니라는 평가에 기반해 올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발표
- 인도지원사무국의 데이비드 샤록 대변인은 유럽연합 조사단이 지난해 10월 유엔의 작황조사단과 함께 북한에서 식량 사정을 조사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
- 북한의 작황이 전년보다 좋았고 북한 당국의 식량배급량도 일인당 일일 400g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이 유럽 조사단의 평가
- 긴급 식량지원 대상 제외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를 비롯한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언급

8. 북한동향

- 우리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민주당·통진당·정의당' 등의 비난을 거론 "민심은 천심"이라며 '현 집권자를 비롯한 당국자들은 민심의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1.13, 평방/맹렬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